

삼성전자, 세계 TV 시장 석권

3/4분기 점유율 25%로 7년 연속 1위 ... 마케팅 · 차별화 주효

삼성전자(대표 권오현)가 3/4분기 세계 63개국 TV 시장을 석권했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2년 3/4분기 세계 평판TV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25.2%로 27분기 연속 1위를 지켰다.

삼성전자는 세계 평판 TV 시장이 2012년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음에도 2012년 1/4-3/4분기 누적 점유율이 26.4%로 전년동기 대비 4%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7년 연속 세계 TV 시장 1위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북미·유럽 등 선진시장은 물론 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 성장시장에서도 LCD(Liquid Crystal Display), LED(Light Emitting Diode), PDP(Plasma Display Panel), 3D 등 모든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1/4-3/4분기 63개 국가에서 TV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조사대상 67개국의 94%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1년 3/4분기에 비해 8개국이 늘었으며, 점유율 40% 이상을 기록한 국가도 2배로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TV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TV제품의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철저한 지역 차별화 전략을 펼친 것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영상전략마케팅팀 이상철 전무는 “초대형 프리미엄 TV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마케팅을 강화해 7년 연속 세계 1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1/19>